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관계

주혜진, 이수경*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e, Gender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Hye-Jin Ju, Soo-Kyoung Lee*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D시와 K도 소재 총 3개 대학의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4학년 간호대학생 208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여 자가 보고식의 구조화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IBM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전체 응답자는 여학생 208명이었으며 133명(63.9%)이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성희롱 피해 경험은 평균 1.56/5점이었고, 젠더감수성은 평균 3.28/5점,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4.05/5점이었다.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은 임상실습 전 성희롱 관련 교육 수강 여부,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 존재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젠더감수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7$, $p<.015$). 향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및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degree of sexual harassment victimization experience, gender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and to confirm their relevance. This was a self-reported structured mobile survey with convenience sampling of 208 fourth-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t three universities in D city and K province. The mean,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applied for statistical analysis using the IBM SPSS/WIN 25.0 program. Of the 208 female student respondents, 133 (63.9%) admitted having experienced sexual harassment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average obtained for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was 1.56 out of 5 points, gender sensitivity was 3.28 out of 5 point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was 4.05 out of 5 poin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tained in sexual harassment victim experience and gender sensitivity according to whether or not they took sexual harassment-related education prior to clinical practice, and whether there was a sexual harassment-related grievance agency.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gender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r=0.17$, $p<.015$).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continuous research to identify various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sexual harassment, gender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Key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exual Harassment, Gender Sensitivity, Professionalism

*Corresponding Author : Soo-Kyoung Lee(Keimyung Univ.)

email: soo1005@kmu.ac.kr

Received July 26, 2022

Accepted October 7, 2022

Revised September 13, 2022

Published October 31,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는 의료기관, 학교 등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장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형태의 성희롱 피해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1]. 특히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는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직종 및 직급의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환자에게 긴밀한 접촉이 있는 간호행위를 수행하며 성희롱 피해경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2,3]. 특히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상 의무적으로 임상실습을 하고 있으며[4], 잦은 실습 기관의 이동으로 낯선 환경에서 병원 소속 직원이 아닌 모호한 위치, 병원 내 의료인들에 비해 낮은 연령과 업무 관련 경험 부족으로 임상실습 시 약자의 위치에서 성희롱 피해경험에 더욱 위협하게 노출되어 있다[4,5].

성희롱 피해경험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학업 증진을 저해하는 인권 침해 행위이며[6,7] 법정 소송, 기관의 이미지 추락, 이직 및 사직으로 인한 인력 소모 등 기관의 손실도 함께 유발한다[1].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성희롱 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희롱 사건을 젠더감수성에 기반을 두어 피해자 중심의 법적 판결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1]. 젠더감수성이란 일상에서 젠더 이슈를 감지하고, 성차별과 불평등을 인지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천 의지와 행동 능력을 의미한다[8,9].

성희롱 피해경험에서 젠더감수성 개념의 핵심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이해로[10]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젠더감수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강조되고 있으며[1] 정부는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10].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에서 상대적 약자인 간호대학생에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을 겪은 간호대학생은 자존감 손상, 분노,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으며 나아가 전과나 휴학을 고려하는 등 간호 전문직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기도 하였다[3,11].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전문 간호사의 자질과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해 가는데 성희롱 피해경험은 부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4,12]. 간호대학생의 부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전공 만족도와 임상 수행 능력을 저하하고 간호업무의 갈등을

생성하거나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결여시키고 간호직 이미지의 하락을 유발한다[13]. 부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한 후에도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이직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간호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어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할 간호대학생에게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14].

성희롱과 젠더감수성의 개념적 연결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은 주로 성희롱 인식과 실태조사 위주로 다루어졌고[4,14-17] 젠더감수성의 선행연구는 피해 여성 또는 일반 대학생으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이루어져[18,26]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젠더감수성이 이슈화 되면서 대학, 문화계, 정치계 등 여러 분야의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고 적극적인 미투 운동으로 확산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관찰되는 시점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인식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10].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성희롱 피해경험으로부터 안전한 임상실습 교육환경 조성 및 성희롱 대처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젠더감수성과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할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와 K도 소재 3곳 간호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수는 G*Power 3.1.9 Program을 사용하여 양측검정으로 상관관계 분석에 필요한 표본의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202명으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최종

242명의 대상자를 목표로 모집하였다. 총 210명의 대상자가 온라인 및 모바일 자가 보고식 설문조사 링크에 참여하였으며 응답한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답변이 부적절한 2부가 탈락되어 최종 208부의 설문지가 본 연구에 분석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희롱 피해경험

성희롱 피해경험 측정 도구는 Lee[17]가 개발한 여자 대학생 성희롱 척도로 하위 5개 영역 성차에 의한 희롱(6), 성적 강요(4), 대가성 성적 강요(4), 희식자리 성희롱(3),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6)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없었다' 1점부터 '매우 자주 있었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1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8$,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4$ 이었다.

2.3.2 젠더감수성

젠더감수성 측정 도구는 Lee[8]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하위 4개 영역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7), 자기성찰(8), 비폭력(7), 성 역할에 대한 개방성(9)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요인별로 분석되어 있었고, Lee[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4$ 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 도구는 Yeun 등[19]이 개발한 도구를 Han 등[20]이 요인별 신뢰도 계수가 낮은 항목이 있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분석 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연구에 적합하게 문항을 축소한 도구로 하위 5개 영역으로 전문적 자아개념(6), 사회적 인식(5), 간호의 전문성(3), 간호계의 역할(2), 간호의 독자성(2)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Yeun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2$ 이었고, Han 등[20] 연구에서 Cronbach's $\alpha=.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 이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WIN 25.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사후 검증은 Scheffe' test를 시행하였다.
- 3) 대상자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에 K 대학교의 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40525-201906-HR-034-04)을 받은 후 온라인 및 모바일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전 D시, K도 소재의 3개 대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의 허락하에 해당 대학의 4학년 단체 채팅방에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이 기술된 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링크로 배부하였다. 설문은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만 공고문에 명시된 링크로 접속하여 참여 동의 서명 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 총 208명의 성별은 모두 여성으로 평균 연령은 23세로 22세 이상~23세 이하가 167명 (80.3%)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중 성희롱 피해경험 횟수는 평균 2.29회로 3회 이상~5회 이하가 78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실습 전 성희롱 교육 수강 여부를 받은 대상자는 116명(55.8%)이었으며, 임상실습 중 성희롱 관련 고충 처리기구의 존재에 대한 인지 여부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117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실습 중 성희롱 피해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은 가해자 처벌 강화가 140명(67.3%)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 during Clinical Practice (N=208)

| Variables | Categories | N(%) | M±SD |
|------------------------------------------------------------|------------------------------------------------------|-----------|------------|
| Age | 22~23 | 167(80.3) | 23.20±0.45 |
| | 24~25 | 41(19.7) | |
| Number of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s | 0 | 75(36.1) | 2.29±2.90 |
| | 1~2 | 34(16.3) | |
| | 3~5 | 78(37.5) | |
| | 6≤ | 21(10.1) | |
| Education | Yes | 116(55.8) | |
| | No | 92(44.2) | |
| Existence of Sexual Harassment Related Grievance Mechanism | Know that | 60(28.8) | |
| | No such a thing | 31(14.9) | |
| | No information | 117(56.3) | |
| Solution of Sexual Harassment | Systematic Sexual Harassment Education | 20(9.6) | |
| | Strengthen Punishment for Perpetrators | 140(67.3) | |
| | Strengthening the Activities of Grievance Mechanisms | 48(23.1) | |
| | | | |

3.2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

성희롱 피해경험은 5점 중 평균 1.56±0.63점, 젠더 감수성은 5점 중 평균 3.28±0.47점, 간호전문직관은 5 점 중 평균 4.05±0.35점 이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s for Sexual Harassment, Gender Sensitivit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N=208)

| Variables | Range | M±SD |
|------------------------------------|-----------|-----------|
| Sexual Harassment | 20~100 | 1.56±0.63 |
| Gender Harassment | | 2.02±0.88 |
| Sexual Coercion | | 1.26±0.54 |
| Compensatory Sexual Coercion | | 1.25±0.61 |
| Unwanted Sexual Attention | | 1.52±0.71 |
| Gender Sensitivity | 31~155 | 3.28±0.47 |
| Open Mindedness to Gender Identity | | 3.38±0.83 |
| Self Reflection | | 3.17±0.57 |
| Nonviolence | | 3.08±0.62 |
| Open Mindedness to Gender Roles | 18~90 | 2.63±0.64 |
| Nursing Professionalism | | 4.05±0.35 |
| Self Concept of the Profession | | 4.09±0.46 |
| Social Awareness | | 3.82±0.42 |
| Professionalism of Nursing | | 4.08±0.49 |
| The Role of Nursing Service | | 4.07±0.54 |
| Originality of Nursing | 4.45±0.67 | |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차이

성희롱 피해경험은 임상실습 중 성희롱 피해경험 횟수 (F=51.20, $p<.001$), 임상실습 전 성희롱 교육 수강 여부 (t=3.47, $p<.001$), 임상실습 중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 구 존재에 대한 인지 여부(F=5.41, $p=.0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중 성희롱 피해경험이 없는 그룹이 성희롱을 경험한 그룹에 비해 낮았고, 1회 이상~2회 이하 그룹이 3회 이상~5회 이하 성희롱을 경험한 그룹보다 낮았다. 임상실습 중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 구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그룹이 모르거나 없다고 생각한 그룹보다 낮았다.

젠더감수성은 임상실습 전 교육 수강 여부(t=2.23, $p=.027$), 임상실습 중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의 존재에 대한 인지 여부(F=3.27, $p=.04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임상실습 중 성희롱 고충처리기구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한 그룹이 모른다고 한 그룹보다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전문직관 하위영역 중 간호계의 역할은 임상실습 중 성희롱 피해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 (F=4.35, $p=.014$)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체계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응답한 그룹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응답한 그룹보다 높았다(Table 3).

3.4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

젠더감수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0.17$, $p<.015$)(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08)

| Variables | Sexual Harassment | Gender Sensitivity | Nursing Professionalism |
|-------------------------|-------------------|--------------------|-------------------------|
| | $r(p)$ | | |
| Sexual Harassment | 1 | | |
| Gender Sensitivity | 0.02(.742) | 1 | |
| Nursing Professionalism | -0.09(.181) | 0.17(.015) | 1 |

Table 3. Difference in Sexual harassment, Gender Sensitivity, Nursing Professionalism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8)

| Variables | Categories | Sexual Harassment | | Gender Sensitivity | | Nursing Professionalism | |
|------------------------------------------------------------|------------------------------------------------------|-------------------|---------------------------------------------|--------------------|-------------------|-------------------------|-------------------|
| | | M±SD | t/F(p) Scheffé | M±SD | t/F(p) Scheffé | M±SD | t/F(p) Scheffé |
| Age | 22~23 | 1.53±0.60 | -1.45(.148) | 3.26±0.46 | -0.57(.572) | 4.05±0.34 | -0.28(.783) |
| | 24~25 | 1.70±0.75 | | 3.31±0.48 | | 4.07±0.40 | |
| Number of Sexual Harassment Damage Experiences | 0 ^a | 1.06±0.08 | 51.20(<.001) a<b,c,d [†] b<c | 3.32±0.47 | 2.62(.052) | 4.05±0.34 | 1.14(.333) |
| | 1~2 ^b | 1.65±0.55 | | 3.14±0.45 | | 4.05±0.37 | |
| | 3~5 ^c | 1.96±0.53 | | 3.32±0.45 | | 4.01±0.33 | |
| | 6≤ ^d | 2.19±0.83 | | 3.39±0.48 | | 4.18±0.35 | |
| Education | Yes | 1.69±0.73 | 3.47(.001) | 3.34±0.50 | 2.23(.027) | 4.07±0.36 | 0.62(.538) |
| | No | 1.41±0.44 | | 3.19±0.41 | | 4.04±0.33 | |
| Existence of Sexual Harassment related Grievance Mechanism | Know that ^a | 1.37±0.45 | 5.41(.005) a<b,c [†] | 3.39±0.49 | 3.27(.040) a>c | 4.12±0.37 | 1.46(.236) |
| | No such a thing ^b | 1.79±0.52 | | 3.32±0.47 | | 4.01±0.30 | |
| | No information ^c | 1.61±0.71 | | 3.20±0.45 | | 4.03±0.35 | |
| Solution of Sexual Harassment | Systematic Sexual Harassment Education | 1.53±0.58 | 0.03(.969) | 3.26±0.51 | 0.35(.707) | 4.16±0.43 | 1.42(.245) |
| | Strengthen Punishment for Perpetrators | 1.57±0.68 | | 3.29±0.47 | | 4.03±0.33 | |
| | Strengthening the Activities of Grievance Mechanisms | 1.57±0.52 | | 3.23±0.45 | | 4.08±0.36 | |

* p<.05

4. 논의

전체 대상자 208명 중 133명(63.9%)의 대상자가 최소 1회 이상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성희롱 피해경험은 평균 5점 만점에 1.56점이었다. 이는 국내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다른 다수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다[4,21-25]. 대상자들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성차별적인 언행에서 성희롱 피해를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여 성희롱 교육 프로그램에 성차별적인 언행에 대한 사례를 제시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와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을 측정할 도구들이 서로 다르고 국가 및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달라 성희롱 피해경험의 유형과 세부 내용을 정확히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지만 국가를 막론하고 연구 시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임상기관 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중재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젠더감수성은 평균 5점 만점에 3.28점이었다. 선행연구에서 젠더감수성은 보건 계열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타 전공계열의 대학생보다, 연령이 어릴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었다[26].

위의 결과로 보았을 때 현재 대학의 교과과정은 젠더감수성에 대한 요소가 누락되어 있고 교과 과정이 서로 다르지만, 간호대학의 교과 과정이 타 전공보다 성교육을 접할 기회가 많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된다[26]. 젠더감수성은 성평등을 포함하여 성과 관련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8]. 여성의 비율이 높은 간호계에서 매년 남자 간호사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성 역할에 대한 개방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다[27]. 성희롱은 개인의 성 정체성과 태도에 따라 다양하게 느껴지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28], 가해자 또한 자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여 다양한 대상자를 접하게 될 간호대학생에게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편견 없는 태도와 다른 사람의 평가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4.05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구 4.00점[14]와 비슷한 결과이지만 Lee와 Wee[29]의 연구 결과 3.55점 보다는 높은 결과이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 시 다양한 환경과 요인에 노출되어있고 성별, 나이, 지역 등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차이로 사료된다[5]. 임상실습 전 학교 또는 임상실습 기관에서 성희롱 교육 수강 여부가 있다고 응답한 그룹이 젠더감수성 하위 영역에서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이 더 높은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학에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0] 임상실습 전 학교 또는 임상실습 기관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44.2%(92명)로 나타났다. 대학 성희롱 예방 교육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 대규모 강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므로[31]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4] 맞춤형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시행 중인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 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직원 등 고충처리 기구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 여부에 따라 성희롱 피해경험, 젠더감수성과 차이가 있었고 성희롱 관련 고충처리기구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56.3% (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 대학은 성희롱 고충을 처리하는 기구를 갖추고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고 전문 담당 인력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30]. 미국 대학의 경우 성희롱을 예방하고 학생에게 안전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최소 1명 이상 지명하며 도움받는 절차에 대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성희롱 피해자가 학업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국가에서 대학에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1]. 임상실습 기관 또한 간호대학생에게 학습의 장소이므로 대학과 상호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성희롱 피해경험 후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보고 체계 개선과 홍보 활동을 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체계적인 성희롱 교육을 응답한 그룹이 가해자 처벌 강화를 응답한 그룹보다 간호전문직관 하위 영역에서 간호계의 역할이 더 높은 결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후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 내 사업주, 기관장 등 고위직의 젠더감수성 향상 및 성희롱 근절 의지가 중요 요인이기에[1]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임상실습 기관의 직원, 교육자의 젠더감수성 교육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희롱과 젠더감수성에 체계

화된 전문 강사의 양성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젠더감수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국의 경우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상담 과정에서 젠더감수성에 기반하여 대상자의 정신 질환에 접근하여 즉각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전략을 제시하고 있고[32]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생들에게 젠더감수성 멘토링을 시행하였을 때 리더십, 경력관리,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33].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젠더감수성은 개인의 직업의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간호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최근 의료 서비스에서 성 불평등을 예방하기 위해 체계화된 젠더감수성 도입이 요구되고 있어[34] 젠더감수성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추후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은 간호전문직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상실습은 직장과 같이 고정된 장소가 아닌 지속적인 부서와 기관의 이동하는 특징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21]. 성희롱 피해경험은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은 주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등 성희롱을 단순 범주화한 실태 조사연구 위주로 진행되었지만[15,16] 본 연구에서는 성희롱 개념에 근거한 행위의 수단이 되는 성적 언동의 세부 유형을 확인하였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 및 간호전문직관과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임상실습 환경 조성을 하고 간호대학생의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을 향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 사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젠더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전공계열 등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젠더감수성 향상을 위해서는 학년별, 성별, 전공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관련성

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젠더감수성과 간호전문직관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젠더감수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시 성희롱과 젠더감수성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젠더감수성과 간호전문직관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로 추후 임상실습 시 성희롱 피해경험과 젠더감수성, 간호전문직관 사이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전체 응답자는 여성만 참가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추후 남자 간호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의 인구학적 특성과 임상실습 환경을 고려한 반복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W. H. Lee, S. R. Lee, S. Byeon, "Legal issues of sexual harassment", *Working Society of Labor Law Theory*, Vol.25, No.2018, pp.123-251, 2018.
DOI: <https://dx.doi.org/10.46329/LLF.2018.11.25.123>
- [2] H. J. Park, H. S. Kang, K. H. Kim, H. J. Kwon, "Exposure to workplace violence and coping in intensive care unit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0, No.3, pp.291, 2011.
DOI: <http://dx.doi.org/10.12934/ikpmhn.2011.20.3.291>
- [3] L. M. Budden, M. Birks, R. Cant, T. Bagley, T. Park, "Australi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bullying and/or harassment during clinical placement", *Collegian*, Vol.24 No.2, pp.125-133, Oct. 2015.
DOI: <https://doi.org/10.1016/j.colegn.2015.11.004>
- [4] S. Y. Jang, H. E. Lee, "The difference of nursing professional values according to the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6, pp.553-561, Jun. 2019.
- [5] T. I. Kim, Y. J. Kwon, M. J. Kim,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3, No.1, pp.21-33, Mar. 2010.
DOI: <https://dx.doi.org/10.4069/kiwhn.2017.23.1.21>
- [6] O. S. Arulogun, I. K. Omotosho,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nd coping strategies among students of the school of nursing of tertiary hospital in southwest Nigeria",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Vol.5, No.4, pp.70-75, 2013.
- [7] S. G. Kim, "A study on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223-231,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223>
- [8] J. Y. Lee, *A study on developing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t*, Master's thesis, Ehwa Womans University of Department of Women Studies, Seoul, Korea, pp.1-107, 2011.
- [9] S. Beyer, E. M. Bowden, "Gender differences in self-perceptions: Convergent evidence from three measures of accuracy and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23, No.2, pp.157-172, Feb. 1997.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97232005>
- [10] E. M. Jang, E. S. Choi, S. E. Kim, "We are moving slowly but Forward" : Practices and challenges in the Korean Journalism for gender-sensitive reporting after the #MeToo", *Korean Women's Communication Association*, Vol.36, No.3, pp.187-236, 2021.
DOI: <https://dx.doi.org/10.38196/mgc.2021.09.36.3.187>
- [11] Mckenna, M. Boyle, "Midwifery student exposure to workplace violence in clinical settings: An exploratory stud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7, pp.123-127, Mar.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5.11.004>
- [12] A. Parandeh, M. Khaghanizade, E. Mohammadi, J. M. Nouri, "Factors influencing development of professional values among nursing students and instructors: a systematic review", *Global Journal of Health Science*, Vol.7, No.2, pp.284-293, Mar. 2015.
DOI: <https://dx.doi.org/10.5539/gjhs.v7n2p284>
- [13] B. J. Park, S. J. Park, H. N. J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7, pp.220-227, Jul.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7.220>
- [14] K. M. Lim, E. J. Jo,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4, pp.556-566, Apr.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4.556>
- [15] K. A. Kang, "Influence of awareness of sexual harassment on nursing students coping behavior during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20, No.2, pp.76-83, 2018.
DOI: <https://dx.doi.org/10.7586/ikbns.2018.20.2.76>
- [16] T. I. Kim, K. Y. Jung, M. J. Kim, "Experience and perception of sexual harassment during the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Women's Health*

- Nursing*, Vol.23, No.1, pp.21-33, 2017.
DOI: <https://doi.org/10.4069/kjwhn.2017.23.1.21>
- [17] Y. E. Lee, Y. H. Kim, "Development of the sexual harassment scale of college femal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9, No.2, pp.437-453, 2008.
- [18] S. J. Lee, K. E. Kim,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gender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date violence: Focused on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Vol.27, No.1, pp.1-21, Mar 2022.
- [19] E. J. Yeu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35, No.6, pp.1091-1100, 2005.
DOI: <https://doi.org/10.4040/ikan.2005.35.6.1091>
- [20] S. S. Han, M. G. Kim,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2008.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21] N. Magnavita, T. Heponiemi, "Workplace violence against nursing students and nurses: an Italian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43, No.2, pp.203-210, Apr. 2011.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11.01392.x>
- [22] G. Bronner, C. Peretx, M. Ehrenfeld, "Sexual harassment of nurses an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42, No.6, pp637-644, Jun. 2003.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3.02667.x>
- [23] Y. Celik, S. S. Celik, "Sexual harassment against nurses in Turkey",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9, No.2, pp.200-206, 2007.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7.00168.x>
- [24] N. Khan, S. Begum, A. Shaheen, "Sexual harassment against staff and student nurses in tertiary care hospitals Peshawar KP Pa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Vol.4, No.1, pp.285-292, 2015.
- [25] Y. Hibino, K. Ogino, M. Inagaki, "Sexual harassment of female nurses by patients in Japan",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8, No.4, pp.400-405, Dec. 2006.
DOI: <https://doi.org/10.1111/j.1547-5069.2006.00134.x>
- [26] Y. A. Ah, "The effects of gender role stereotypes of parents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gender sensitivity of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Vol.51, No.0, pp.79-98, Sep. 2020.
DOI: <https://dx.doi.org/10.20993/jSSW.51.4>
- [27] R. J. Meadus, J. C. Twomey, "Men student nurses: The nursing education experience", *In Nursing Forum*, Vol.46, No.4, pp.269-279, Oct. 2011.
DOI: <https://doi.org/10.1111/j.1744-6198.2011.00239.x>
- [28] L. F. Fitzgerald., "Sexual harassment: Violence against women in the workplace", *American Psychologist*, Vol.48, No.10, pp.1070, 1993.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48.10.1070>
- [29] J. H. Lee, O. Y. Wi,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and majo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of incivility in clinical practice setting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students of one nursing university",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24, pp.435-456, 2020.
DOI: <https://dx.doi.org/10.22251/ilcci.2020.20.24.435>
- [30] M. J. Lee, J. S. Park, "Emotional responses, coping and social support for verbal abuse, sexual harassment, physical threat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training", *Institute for Gender and Law*, Vol.11, No.2, pp.59-90, 2019.
DOI: <https://dx.doi.org/10.22791/ewhagl.2019.11.2.003>
- [31] J. H. Lee, "Types of legal liability for campus sexual assault and their relationship, focusing on campus sexual assault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Hanyang Law Association*, Vo31, No.4, pp.29-54, Nov. 2020.
DOI: <https://dx.doi.org/10.35227/HYL.R.2020.11.31.4.29>
- [32] M. Bergin, J. S. G. Wells, S. Owen, "Gender sensitivity, mental health care provision and minority communities in Ireland: a realist analysis", *Mental Health & Human Resilience International Journal*, Vol.1, No.1, pp.1-9, Aug, 2017.
DOI: <https://doi.org/10.23880/mhrij-16000106>
- [33] P. Gaida, S. Kujumdshiev, K. Stengler, "Gender sensitivity in career mentoring—a project report from the medical faculty of Leipzig university", *GMS Journal for Medical Education*, Vol.37, No.2, Mar. 2020.
DOI: <https://dx.doi.org/10.3205/zma001317>
- [34] H. Celik, T. A. Largo, G. G. Widdershoven, T. A. Abma, "Bringing gender sensitivity into healthcare practice: a systematic review",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Vol.84, No.2, pp143-149, Aug, 2011.
DOI: <https://dx.doi.org/10.1016/j.pec.2010.07.016>

주혜진(Hye-Jin Ju)

[정회원]



• 2021년 8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관심분야>

기초, 성인간호학

이 수 경(Soo-Kyoung Lee)

[종신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학사)
- 2005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료경영과정보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의료/간호정보, 헬스빅데이터, 머신러닝, 네트워크분석